

# 그린나래



## CONTENTS

### [ 정책 ]

- 삶의 질을 보장하다. 기본소득
-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시행

### [ 앙케이트 ]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 [ 문화 ]

- 코로나19로 변화된 공연문화

### [ 교육 ]

- 코로나19가 바꾼 학교 수업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학습문제
- 한복 교복 보급, 한복의 미 재발견 될까?
- 9월 학기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 [ 사회 ]

- 우리는 머슴이 아닙니다
-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드러난 대한민국의 힘

### [ 환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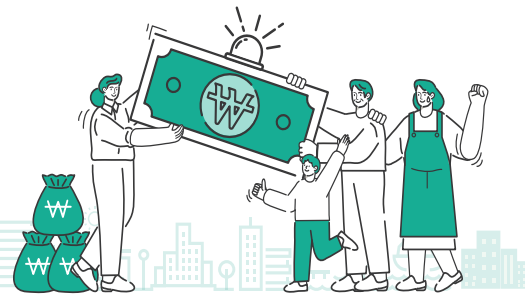
- 지구온난화가 빙하 속 고대 바이러스 깨워
- 제로 웨이스트숍을 아시나요?

### [ 경제 ]

- 화성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대안, 사회적 기업
- 코로나19, IT 산업까지 영향 끼쳐
- "한미 FTA 재협상" 경제 시장에 활력소

# 삶의 질을 보장하다, 기본소득!

##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



지난 3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가의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왔으며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도왔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정부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기본소득제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제도이다. 국민 모두가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는 복지 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JTBC 맞장토론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정책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수요를 부양하는 차원도 도움이 되고 혁신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이 스탠딩 런던대학 교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행정적인 비용을 줄이면서도 직접적이며 투명하고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그의 저서 <기본

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장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했다. 핀란드 정부는 2년간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약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끼치는 효과는 분명했으나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던 일을 기피할 수 있고 아직 전 세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어 그 중요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미국의 스톡턴시의 기본소득제 실험에서 수급자들은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있고, 과거에 저축할 돈이 없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위 실험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 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지금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게 하거나, 돌봄과 학업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진정한 복지 국가로 향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권형준 기자



# 화성시

##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시행

### [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눈길 ]

경기도 화성시가 2021년 청소년에게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다. 화성시는 11월부터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은 약 14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시는 자가용 이용이 줄면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 혼잡비용,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다. 화성시는 실제로 서울특별시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현재 화성시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12~15%인 1만 7,000명~2만 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화성시의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은 1,050원, 마을 버스 요금은 950원으로 약 14만명이 무상교통을 이용하면 약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무상교통 정책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서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 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민, 친환경 정책

이라며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정○○씨를 취재했다.

Q.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A. 아니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주로 부모님 차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닙니다.

Q.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주로 부모님 차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닙니다.

Q.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청소년의 입장에서 버스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며 자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화성시가 사회적으로 더욱 발전하여 살기 좋고 편리한 화성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응답자 소개** 화성시 관내 청소년 총 **229명** (남자: 71명/ 여자: 15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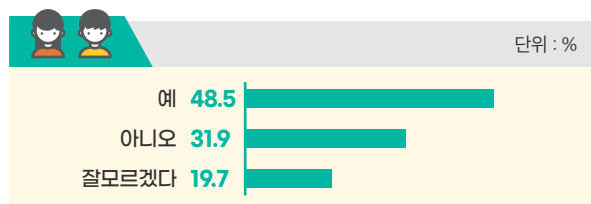
14~16세(중학생): 176명 / 17~19세(고등학생): 53명

**응답기간** 2020. 07. 15 ~ 0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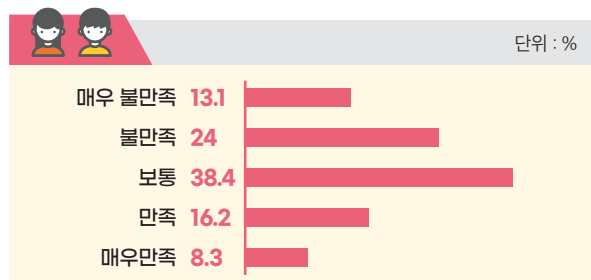
**응답방법** 네이버 폼 이용 (온라인 설문)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청소년들은 1학기를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했다. 그렇게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겪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전과 현재의 삶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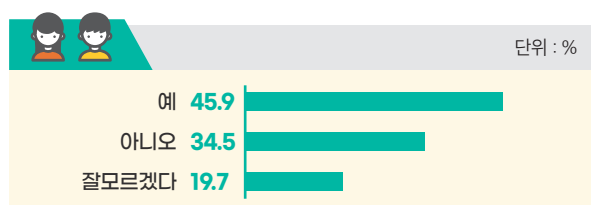
## 1.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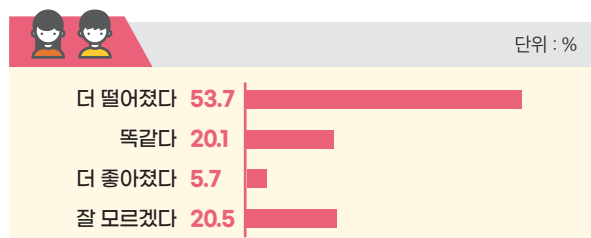
## 2. 2020년 1학기에 운영된 등교와 온라인 병행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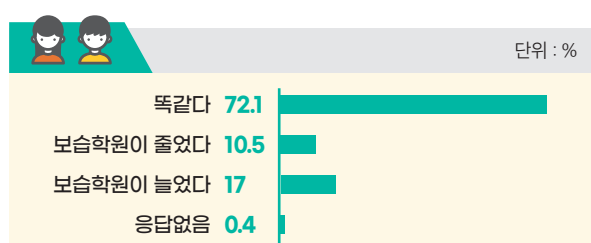
## 3.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 2학기에도 비슷하다면,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온라인, 등교수업)의 수준이 그 이전보다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5.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보습학원을 얼마나 다니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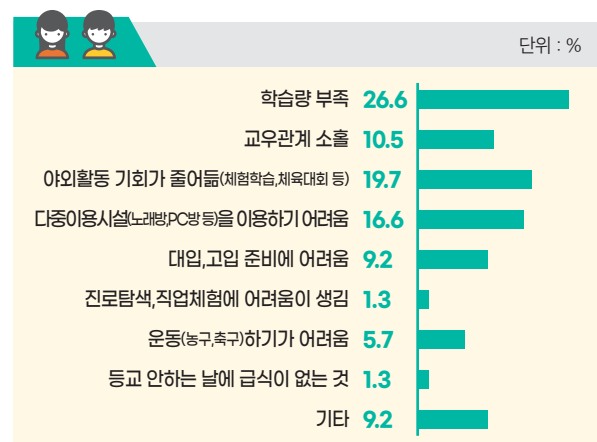
화성시 관내 청소년(14~19세) 22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8.5%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 학기 동안에 운영된 등교와 온라인 병행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38.4%의 청소년들이 보통, 24.5%가 만족 이상으로 답하여 이러한 수업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2학기에도 지속될 경우에는 45.9%의 청소년들이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온라인, 등교수업)의 수준의 변화에는 가장 많은 53.7%의 청소년들이 이전보다 수준이 더 떨어졌다고 답했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0.1%, 좋아졌다는 응답이 5.7%에 그쳐 대부분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보습학원을 얼마나 다니냐는 질문에는 72.1%가 기존과 똑같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응답이 17%, 줄었다는 응답이 10.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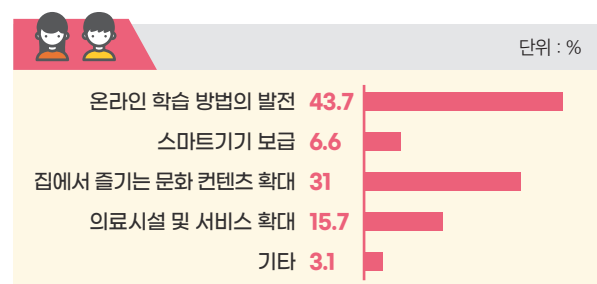
## 6.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변화된 생활에 가장 좋은 점은?



## 7.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변화된 생활에 가장 나쁜 점은?



## 8.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우리사회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되길 바라는 부분인가요?



방법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집에서 즐기는 문화 콘텐츠 확대가 31%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15.7%로 그 뒤를 따르며 이 문항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방식이 개선되기 바라는 청소년 대다수의 바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서도 슬기롭게 생활해왔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등장했고, 수업 방식이 보다 편리해졌으며,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으로 불안정 서버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청소년들의 학습량 역시 저하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상에서의 수업의 장점은 살리고,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등교 수업의 병행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권형준 기자



# 코로나19로 변화된 ‘공연문화’



편리하게 즐기는  
온라인 콘서트 시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람하는 형태의 공연예술계가 휘청이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공연 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여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공연을 관람하게 됐다.

MBC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방구석 콘서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방구석 콘서트에는 지코, 유산슬, 맘마미아 뮤지컬팀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무대를 밝게 빛냈다. 비록 관객석은 텅 비었지만 시청자들의 마음만은 꽉 찬 공연이 되었다.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하면 멋진 공연을 즐길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며 아티스트의 온라인 콘서트 소식은 무척 반가웠을 것이다. 많은 곳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한 만큼 진행하는 방법도 각각 달랐다. 첫 번째는 직접 라이브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팬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전에 콘서트를 미리 촬영해 놓은 촬영본을 관객들에게 상영해주는 방법이다. 집에서도 함께 콘서트를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이전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NCT 127, 방탄소년단 등 여러 아이돌과 발레, 국악 등 많은 분야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여 많은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었다.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을 관람한 오산시 중학교 2학년 류○○씨를 취재했다.

**Q. 온라인 콘서트 어땠나요?**

A. 무료로 진행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좋아하는 가수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관람했던 온라인 콘서트는 응원봉을 원격 조정할 수 있어서 더욱 생생했어요.

**Q.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하며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A.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킬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Q.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A.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다 보니 서버가 불안정할 때도 있어 조금 불편했어요.

**Q. 다음에 또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한다면 다시 관람하실 의향이 있나요?**

A. 네. 왜냐하면 실제 콘서트를 보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하면 공연을 더욱 잘 관람할 수 있어 좋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였지만 관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온라인 콘서트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이번에 생겼던 작은 결점들도 보완해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이 되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기자



# 코로나19가 바꾼 학교 수업

## 온라인 수업의 시작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등교 개학이 장기화가 되자 지난 4월 9일부터 고3, 중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온라인 수업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다. 첫 번째로 콘텐츠 활용형이다.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것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돌려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쌍방향형이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수업하여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과제 수행형은 수업에 대한 과제를 내주는 방식이다.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무엇일까? 일단 온라인 수업의 큰 장점은 감염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수업이라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은 수업에 대한 과제 피드백을 교사가 하나씩 검사하고 댓글로 달아줘 좀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각각의 반에 따라 수업 분위기가 달라져 집중력의 정도가 각기 다르지만, 온라인 수업은 혼자 수업을 들어 수업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하루에 공부해야 할 분량만 영상을 보면 되는 것으로 수업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만큼 자기주도학습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쌍방향 수업의 경우 인터넷의 속도에 따라 버퍼링 현상이 있어 수업 전달에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버나 인터넷의 문제로 출석 체크가 되지 않았거나 수업을 다 들어도 완강 처리가 되지 않아 무단결석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면에서 신경 써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48)씨를 취재했다.**

**Q.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영상으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죠. 또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못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숙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른들 손길이 필요한데, 제한된 시간 안에 과제물 제출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같은 내용으로 고등학교 1학년 김○○학생을 취재했다.**

**Q.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등교 시간이 걸리지 않아 좋지만 서버가 불안정하고 인쇄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요. 동영상의 길이가 모두 달라 시간을 맞춰 듣기가 힘들어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전부 바뀌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시기를 극복하여 하루 빨리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오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유빈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학습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휴교라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우려돼 학생들의 건강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을 때 장애학생들과 가정에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 수업 집중도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부정학습을 하거나 강의를 틀어놓은 상태로 게임 혹은 SNS를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EBS 온라인 교재를 점자 파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EBS 강의에 자막을 넣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원격수업, 1:1 방문교육, 학습꾸러미 제공 등 학생의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있고,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요즘 청소년들의 새로운 공부법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스터디 앱, 타임랩스, 공스타그램과 같은 것으로 공부를 하는 추세이다.

2020년 6월 19일 엘리트 교복이 10대 초, 중, 고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생들의 83%가 공부를 할 때 스터디 앱, 공스타그램, 타임랩스를 사용한다고 했다. 이 중에서 스터디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타임랩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설문 청소년의 반 이상은 주 2~3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공부목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깐 지키게 된다.”, “공부할 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 수 있으니 뿌듯하다.”, “공부하는 다른 분들을 보니까 승부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휴대폰으로 공부를 하니깐 다른 앱이나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등의 얘기도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여러 온라인 수업법을 이용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학습 도구 개발을 주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인영** 기자



# 한복교복보급, 한복의미 재발견 될까?



우리나라 전통 의상 한복, **교복이 되다.**

한복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가장 대표적인 전통문화이지만 일상에서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전국 300여 개 학교 학생들은 ‘교복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한다.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업체들이 교복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한복 교복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중·고등학교 20개교를 공모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작년 4월 ‘한복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한복 교복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했다. 한복 교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되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치마, 내리단리(원피스),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복 교복이 불편할 거라는 선입견을 없애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전반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었다. 몸에 꼭 끼는 등 성 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을 ‘편한 교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또한 교복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잘 마르는 내구성과 기능성을 갖춘 원단을 사용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상에서는 ‘한복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것 같다.”, “세탁이 힘들 것 같다.”, “학생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느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 한복 교복을 입고 있는 민족사관고와 전주 삼현여고의 학생은 “불편함이 없고 진짜 편하다”,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는 한복 교복이 멋지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빠르면 2020년 2학기부터 전국 약 20개교의 학생들이 ‘한복 교복’을 입을 수 있다. ‘한복 교복’의 보급으로 예쁘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 의상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 한복 입는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유빈 기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번 개학이 미뤄진 여파로 학사 일정 이 크게 변동됐다. 그로 인한 교육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월 학기제는 1학기가 9월에 시작돼 12월 말에 종료된 후 겨울방학 2주를 한 후 2학기를 1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하고 여름방학을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시행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7년, 2007년과 2015년에 9월 학기제를 검토했지만, 결국 모두 무산됐다.

9월 학기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9월 학기제가 2월에 시행하여 애매한 봄방학을 없애고, 외국의 여러 나라와 일정이 비슷해져 해외 유학 등 타국과 관련한 일이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OECD 국가들 중 한국, 일본, 호주만 봄에 학기가 시작되는 교육 형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2020학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소와 부실한 수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해 비해 9월 학기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9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첫 연

도에 많은 신입생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교실과 교직원 확보가 필요해 최대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학교 외에서도 수능과 취업 관련 일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9월 학기제를 시행하면 학생과 교사에게는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 학생 입장에서선 2020학년도 12월까지를 1학기로 정하고 2021학년도 6월까지를 2학기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9월 학기제를 시행하면 수업일수도 늘릴 수 있는데다가 현재 불공평한 상황에 있는 2020학년도 학생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교사로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 수업일수를 늘려 진도를 차근차근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초등학교 6학년 김○○ 학생을 취재했다.**

**Q. 9월 학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만약 9월 학기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취업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입지가 불리해지고, 1년을 애매하게 건너뛰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으로서 용납할 수 없어요.

위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일이 줄어드는 것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단점이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인터뷰에서 “중학교 2학년의 1학기 출석일수가 겨우 16일이다. 이대로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9월 학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된 현 시점에서 9월 학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현 기자



# 우리는 머슴이 아닙니다.



## 경비원을 향한 갑질과 폭언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의 경비원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 경비원은 입주민의 보행에 방해가 될만 한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동시켰다. 차주인 입주민은 그 경비원에게 화를 내며 “머슴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어버린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졌다. 경비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한 경비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서 분신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2018년 40대 입주민이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폭행하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를 지켜주는 경비원의 죽음은 왜 지속적으로 반복될까?

경비원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낮은 형량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커튼 봉으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재판으로 처벌되어진 사례만 보아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즉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비원의 취약한 고용 구조를 들 수 있다. 입주자들은 대표회의를 통해 용역업체를 결정하고, 용역업체는 경비원과 단

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막강한 권한을 획득하는 갑·을·병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계약 형태는 경비원들의 갑질에 대한 불만 제기가 실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셋째, 모호한 업무의 경계가 요인 중 하나이다. 경비업법 제 7조 제 5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이 택배 관리, 주차 관리,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4명 중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경비원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유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목놓아 말하는 것이 법 개정이다. 우선 지자체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그 내용은 사용자에 입주민을 포함시키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법이 바뀌면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들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 주택법 개정안으로 경비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용역 업체가 아니라 바로 관리 소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지만 통과가 안된 상태이다. 제 2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아파트나 그 밖의 주거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입주민들 역시 경비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권형준 기자



2019년 7월경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그 결정적 이유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경제 보복을 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한국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 일본은 1965년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맺은 한일청구권협약을 통해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입장이었고, 한국은 개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었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약에 따라 제3국과의 중재위원회를 요구했는데 한국정부가 이를 대응하지 않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한 것이다.

이것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일본에게 품고 있던 악감정과 합쳐지며 한국 사람들은 분노했고,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물결로 이어지게 되었다.

불매운동이 처음 시작된 작년에는 전년대비 일본 항공권 예약이 급감했고, 한국단체관광객은 거의 0%를 찍기도 했으며 일본 거리는 물론 일본 관광지가 텅 비게 되기도 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불매운동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가려졌을 뿐, 불매운동으로 인해 닛산, GU, 올림푸스 등의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데상트 역시 매장 축소를 결정했다. 모스버거(MOS BURGER), DHC 등의 여러 일본 기업들도 한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판매량이 높은 일본 맥주를 손해를 감수하며 철수하기도 했고, 수입 맥주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던 일본의 아사히 맥주는 판매량이 90%이상 줄어드는 결과를 맞게 됐다. 마트에서는 일본제품을 찾는 손님도 거의 없을 정도로 불매운동이 당연하게 실천되고 있다.

불매운동은 일본제품을 사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일본제품을 대신할 우리나라의 제품을 찾기 시작하며 우리나라 제품의 소비도 늘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불매운동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의 생각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불매운동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불매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까지 높이게 되는 쾌거를 직시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 지구온난화가 빙하 속

## 고대 바이러스 깨워

###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 시급히 방향 전환해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공포 속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바이러스가 여러 차례 녹아서 발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얼어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이 실제로 발견됐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마을에서 2,000마리나 넘는 순록들과 한 12세 목동이 탄저병으로 숨졌고, 주민 8명이 탄저균에 감염됐다. 탄저병이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1941년 이후 처음이었다. YTN 사이언스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 탄저병의 원인이 최근 시베리아 지역의 전례 없는 고온으로 인해 빙하 속에 있던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의 사체가 녹아 탄저균이 부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북극권의 급격한 온도 상승 때문이라면 얼어있던 바이러스가 충분히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 연구진은 티베트의 빙하에서 바이러스 그룹을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는 약 1만 5,000여년 전 정도에 형성된 고대 바이러스임이 밝혀졌다.

현재 북극권의 기온은 아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BBC 뉴스에 따르면 이것은 지구의 다른 지역들보다 약 3배가 빠른 속도다. 만약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점점 빠르게 얼음과 영구동토층이 녹아 다른 전염성 바이러스들이 방출된다. 또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아 시베리아에서 더욱 쉽게 바다와 북극으로 접근할 수 있어 시베리아와 북극의 광물 채굴자가 늘어나 바이러스의 노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얼음에 얼어있던 바이러스는 현세대의 인간이 경험해본 적이 없으므로 백신과 대비책이 없어 인간에게 더욱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의 바르사니 박사 연구팀은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얼어붙었던 배설물이 녹으면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고대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인간의 면역체계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인류가 하루 빨리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코로나19처럼 세계적 바이러스 유행을 다시 불러 일으킬 염려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일이다. 나사 기후학 소장 제임스 헨슨은 “우리는 전환점을 넘었지만 돌아오지 못할 지점을 넘기진 않았다. 아직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구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현 기자



# 제로 웨이스트 숍을 아시나요?



우리가 물건을 사서 포장지를 뜯는 순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쌓이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이 썩는 데에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숍(Zero Waste Shop), 말 그대로 낭비되는 쓰레기가 없는 가게들이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먼저 독일에서는 빈 병을 모아가면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쿠폰으로 환급해 주거나, 유리병 등의 빈 용기를 직접 가져가 제품을 용기에 담아서 구매하는 식의 제로 웨이스트 숍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게들은 독일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독일 전역에서 50개가 넘게 생기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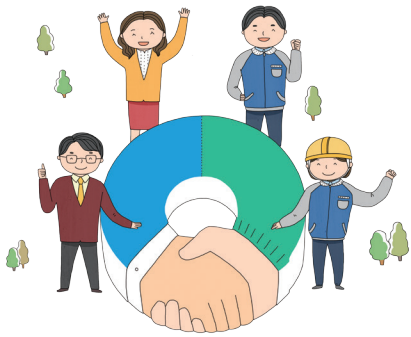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제로 웨이스트 숍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식료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숍인 '더 피커(the Picker)'와 화장품들을 리필할 수 있는 '알맹상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지구샵' 등이 생기고 있다. 이 가게들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 용기를 가져가거나 가게에 있는 용기를 구매하여 그 용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만 담아서 자신이 산 무게만큼만 계산하며, 닦아서 쓸 수 있는 빨대나 생분해되는 연필 등의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판매하기도 한다. 포장을 할 때에도 플라스틱, 비닐 포장지 대신 친환경적인 포장지나 보자기 등으로 포장한다. 이런 제로 웨이스트 숍들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는 물론, 일회용품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숍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형태의 가게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소비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제로 웨이스트 숍 같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생산을 만들어내는 곳들이 하루빨리 확대되어 상용화 되도록 하는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령 기자





## 화성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대안,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 화성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 미래 경제에 주축이 될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일까?

사회적 기업이란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처럼 기업의 이윤 추구만 최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사회적 목적과 기업의 이윤 추구를 동시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업 활동 중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한국에서 새로 인증된 기업은 256개, 2018년에는 312개, 2019년에는 392개로 증가세를 보인다. 현재까지의 사회적 기업은 전국에 2,518개, 경기도는 421개로 점진적인 창업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해봄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혁신 금융, 내일로 기업과 혁신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의 수급자 비율이 매년 0.2%씩 증가하여, 사회적 기업인 한국사회혁신 금융과 내일로가 수급자들이 한국에서 배급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경기도 내 800명인 수급자의 스스로 설 수 있는 의지를 돕고 일자리를 지속하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일반 수

급자의 자립 능력이 향상 되고 정부의 재정이 절감됐다. 절약된 정부 급여가 39억 2,000만원, 탈수급자가 일구어낸 근로 소득이 59억 3,000만원, 취업 1년 미만 수급자의 노동으로 절감된 정부급여 1억 7,000만원으로 총 100억 2,000만원 편익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화성시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화성시는 2020년 3월, 사회적 기업인 패션 업사이클링 기업 ‘루꼬니’와 손잡고 오픈마켓을 시작했다. ‘루꼬니’는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다. 이 기업은 버려지거나 헐값에 수거상에 넘겨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패션재화를 기증 받아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하거나 활용도를 높여 되팔아 그 가치를 높이는 기업으로, 판매 수익금은 화성 시내 소외 이웃과 나누고 공익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은 화성시의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일 것이며,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역시 확대시켜 화성시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합시켜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서비스를 혁신시켜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 공헌과 윤리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사회적 가치를 끊임 없이 창출해 줄 것이다. 소비자의 착한 소비를 돕고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재투자되기 때문에 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 이윤은 화성시 내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원동력도 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은빈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IT업계의 큰 행사인 MWC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행사가 취소됐다.

MWC는 매년 2월 열리는 세계적인 IT 업계 전시로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기 박람회다. 매년 10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참여해 모바일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삼성, MS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신제품 등을 선보이고 체험하는 자리다. 하지만 행사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게 되었다. LG, 페이스북, 노키아, 스프린트 등 전시 철회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결국 행사 주최 기구 GSMA는 정상적인 전시가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하여 행사를 취소했다. 하지만 MWC 2020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니, 샤오미, 페이스북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본인들의 제품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며 많은 IT기술이 동

원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이루어졌다.

코로나로 인해 이루어진 '거리두기' 실천은 비대면 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의 개발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비브로스가 운영하는 '똑닥' 앱은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로 전국 병원·약국 찾기, 예약 접수, 진료순서 확인 등을 온라인 앱 하나만으로 쉽게 진행한다.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확진자 확인 시스템도 대표적인 서비스 예시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는 기업이 아닌 시민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더 눈에 띈다. 대구 중학생 두 명이 개발하여 도표와 수치로 코로나19 국내 현황을 보여주며 질병관리본부 공식자료로 제작되고 있는 '코로나 나우', 대학생이 혼자 프로그래밍을 배워 개발한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알려주는 '코로나 맵',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보여주는 '유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IT 업계에서는 대규모 행사의 취소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 코로나19와 접목한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의 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대면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변화만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것과 제약적인 사회 속에서 또 다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회 속에서 IT업계는 또 어떠한 발전과 변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높아져만 간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연우 기자





## 대미 수출액 증가하고 제조업 농수산물 시장 성장해

2018년 3월, 한미 FTA가 재협상으로 우리 한국 경제시장에는 보다 더 큰 경제의 꽃 봉오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제조업부터 농수산물 시장까지 자유무역협정으로 열린 무역의 길이 우리 경제를 차근차근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즉 '미국에 대한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증대한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183억 9,9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전 연평균 92억 2,000만 달러 흑자에서 발효 후 220억 1,000만 달러로 138.8% 증가했다. 이 중 한미 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약 48억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시장은 한미 FTA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분야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 간의 관세 장벽이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의 수출이 증

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수출이 한미 FTA 전체 수출 효과의 97%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식품 제조업의 수출이 늘어나 농축수산물식품업 분야에서도 소폭의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3월 농식품 전 세계 누적 수출액은 작년에 비해 5.8% 증가한 17억 5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누적수출액은 작년 대비 12.2% 증가한 10억 7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협정 서명식에서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에 대한 지지를 내보였다.

한미 FTA는 이러한 제조업과 농수산물시장의 성장 효과 및 그 외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무역 시장을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생산품들을 수출시켜 경제 영토를 점차 넓히게 될 전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수출 증가에 따라 일손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농업, 어업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 갔을 선택의 폭도 확연히 넓어지게 된다.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 역시 인하되어 물가가 안정이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은빈 기자

